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9. 5.(화) 06:00 < 9.5.(화) 석간 > 배포 2023. 9. 4.(월)

과테말라와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가입 협상 타결

-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를 통해 수출 확대 및 북중미 진출 가속화 기대

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자유무역협정(FTA) 연결망(네트워크)이 확대된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(화)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*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,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.

* (기존 중미 5개국)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파나마

이번 가입 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, 섬유,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*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고, 우리 측은 커피,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, 쌀, 참깨, 천연 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하였다.

*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기존 중미 5개국 평균(95.6%) 대비 낮은 95.3% 품목을 개방하고,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평균(95.4%) 대비 높은 95.7% 품목을 개방키로 합의

안 본부장은 “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.”라면서, “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·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	책임자	과 장	고 현 (044-203-5750)
		담당자	사무관	심주영 (044-203-5752)
			사무관	박재형 (044-203-575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협상 타결 의의 및 기대효과

1. 협상 타결 의의

한-중미 FTA*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별 비준을 거쳐 '21.3월 전체 발효되었으며, FTA 체결효과 등에 힘입어 중미 5개국과의 교역은 증가 추세에 있다.

* 한-중미 5국 교역규모 : ('19, 일부 국가 발효) 26.1 억불 → ('22) 28.4 억불

중미 6개국 전체 GDP의 약 32%(936억불), 인구 37%(19백만명)를 차지하는 중미 최대시장인 과테말라는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 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,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미주 지역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

2. 기대 효과

이번에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.

① 과테말라는 미국 및 중미 등 인근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으나,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품목(석유·화학제품, 휴대전화, 자동차, 의약품 등)과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(석유·화학제품, 자동차, 의약품 등)이 상당수 일치하여, 우리측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 혜택 및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활용한 교역 및 미주 지역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.

* 주요 수출품목(한국→과테말라) : 자동차, 석유제품, 의약품, 건설중장비, 면사 등
주요 수입품목(과테말라→한국) : 커피, 바나나, 니켈광, 금속 스크랩 등

② 또한,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간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인접 국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생산된 제품도 FTA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한-중미 FTA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되고, 우리 기업들이 중미 지역에 많이 진출한 섬유·의류 등 분야에서 원료 조달 등 한국-중미 6개국간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③ 과테말라가 기존 한-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*을 수용함에 따라, 향후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·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

* 국산부품 사용 및 기술이전 요구 등 금지, 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 등

④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과테말라가 한-중미 FTA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과테말라 정부조달 시장 및 미주개발은행(IDB) 등의 에너지·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.

⑤ 아울러, 미국, 멕시코, 콜롬비아, EU 등 미주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과테말라의 FTA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참고2 협상 추진 경과

1. 추진 배경

□ 중미 최대 시장*인 **과테말라는 한-중미 FTA 원협상국**이었으나, 일부 상품양허 및 원산지 기준 이견으로 **서명 불참**

* 중미 6개국 중 인구 1위(1,871만명), GDP 1위(936억불), 교역액 1위(478억불)

□ 이후, 한-중미 FTA 최종 발효('21.3) 계기, **과테말라의 추가 가입 의사 표명** 및 **우리측 실익**(수출확대, 공급망 개선 등)이 기대됨에 따라, 가입협상 추진

2. 추진 경과

□ '21.3월, 한-중미 FTA 전체발효 계기, 과측의 FTA 가입의사 공식표명

□ '21.9~'23.7월, 가입협상 개시 합의에 따라 상품 양허 등 협의 진행 및 중미 5개국과 과측 가입조건에 대한 동의확보 추진

* 다른 중미국가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 조정 등

□ '23.8월, 양국간 쟁점타결에 최종 합의

* (상품)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, (원산지·규범 등) 한-중미 FTA 원안 수용

참고3 타결선언식 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**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**을 위한 **한국과 과테말라 간 양자 협상의 타결**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**타결선언식(화상) 개최**

□ 행사 계획

○ **(일시/장소)** ‘23.9.5.(화) 09:00, 소공동 롯데호텔(36F, 아스트홀)

○ **(주요내용)**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선언 및 공동 선언문 서명

○ **(참석자)** (한)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, 주과테말라 한국대사 등
(과) 루즈 페레즈 경제부장관, 주한 과테말라대사 등

< 타결 선언식 진행순서 >

식순	내 용	비 고
1	과테말라측 축사	루즈 페레즈 경제부 장관
2	한국측 축사	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
3	공동 선언문 서명	공동
4	사진촬영	공동

□ 향후 일정

○ 양국간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후, 중미6개국과 정식 서명 추진

* 타결선언 → 법률검토·국문검독 → 국내 서명절차 → 정식 서명

참고4 한-과테말라 교역 현황

□ 교역 현황

단위 : 백만불, 전년대비 %

구 분		'18	'19	'20	'21	'22
수 출	금액	237	222	203	384	323
	증가율	△1.7	△6.3	△8.6	88.8	△15.9
수 입	금액	67	64	78	138	131
	증가율	△40.2	△4.5	21.9	77.2	△5.0
무역규모		304	286	281	522	454
증가율		△13.9	△5.9	△1.8	85.8	△13.0
무역수지		170	158	125	246	192

□ 주요 교역 품목(2022년 기준)

단위 : 백만불, 전년대비 %, MTI 4단위

순위	수 출(한→과)			수 입(과→한)		
	품목명	금액	비중	품목명	금액	비중
1	승용차	39	12.1	커피류	68	51.9
2	경유	38	11.8	니켈광	14	10.7
3	화물자동차	32	9.9	동괴및스크랩	10	7.6
4	합성수지	29	9.0	과실류	10	7.6
5	의약품	19	5.9	편직제의류	10	7.6
6	면사	16	5.0	알루미늄괴및스크랩	9	6.9
7	건설중장비	14	4.3	기타 전기부품	5	3.8
8	기타정밀화학제품	13	4.0	고철	2	1.5
9	염료	13	4.0	종자류	1	0.8
10	편직물	11	3.4	직물제의류	1	0.8
	10대 품목 합계	224	69.3	10대 품목 합계	130	99.2
	전체 합계	323	100	전체 합계	131	100